

상가·절 상생의 길 찾아야



유선여관.



구림리 상가.

비가 내려서인지 다니는 사람들이 드물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상가들을 둘러보는데, 사람들 표정이 하늘의 먹구름을 닮았다. 곳은 날씨 속의 곳은 얼얼할. 발을 걸어도 별 대꾸를 하지 않는다. 낮은 짐심으로 비빔밥을 먹는데, 맛이 없다. 왜 이렇게 사람들 표정이 어두워 보이냐고 물었더니, 이들을 밝히길 꺼려하는 상가 주인이 마지못해 대답을 한다.

“유선여관 등은 절집이여. 다 내려 보냈서, 거기서 독점을 함께 뭐라 안 하겠어. 차는 겉로 막을라가분디 뵈 장사가 뵈.”

개인 상가들은 아래쪽으로 이전하게 하고, 절에서 운영하는 몇 개의 상가를 그대로 두었다는 말이다. 구림이 잔뜩 긴 구림리를 뒤로 하고 주차장을 빠져나온다.

대흥사 오르는 길의 숲은 오래된 고교가 숨어 있다. 고요를 지나는 물소리는 고요하지 않지만, 그 맑음이 고요를 더 깊게 한다. 비가 내려도 날은 맑다. 그나마 숲 깊은 곳이라 푸른 물 툭툭 떨어질 것 같은 바람이 분다. 이 숲길에서는 빗방울도 초 록이다.

한참 가셔야 몇 개의 가게가 나오고, 유서 깊은 유선여관이 나온다. 새로 개보수를 하겠다는 유선여관은 예전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대흥사는 일주문이 둘이다. 먼저 보이는 것은 두륜산 대문사라는 현판이 붙은 일주문이고, 한참 지나 두륜산 대흥사라 써어진 일주문이 나온다. 나팔 여초에 장건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흥사는 오래 전엔 ‘한들절’이라 불렀다. 두륜산의 본래

이름이 ‘한들’이었기 때문인데, 이후 한자의 영향을 받아 대들절이 되었다가, 대문사, 대흥사로 바뀌었다. 대흥사는 1993년 대문사라는 옛 이름으로 고쳐다가 다시 대흥사로 바꾸었다. 일주문이 둘인 것과 이름이 바뀐 것이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또한 대흥사에는 사천왕상이 없는데, 그 이유는 대문산 봉우리들이 사천왕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 한다. 10여 년 전에 올 때만 하여도 단정한 인상이었는데, 지금은 왠지 행한 느낌이 든다. 절 앞쪽을 새로 다진 터가 아직 익지 않는 탓이라.

문턱 있는 문을 지나야 나오는 천불전은 여전히다. 천불을 뵈고 저마다 모습이 다른 그 많은 부처

유선여관 등이 상권 독점해 아래쪽 개인 상가들 원성 대탄 주지 직인으로 마을 치량 구분

님을 뵈고, 두 손을 모은 후 ‘불거(不居)’와 ‘공덕(功德)’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이내 걸음을 옮겨 대웅전으로 향한다. 대흥사 대웅전의 현판은 원교 이광사의 글씨다. 그런데 이 현판은 추사 김정희가 유배 갈 때 때려내고 9년 뒤 다시 돌아올 때 붙였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대웅전 바로 옆 건물인 ‘무량수각(無量壽閣)’의 현판이 추사가 원교의 글씨 대신 걸었다는 글씨다.

오래도록 완속이라는 말을 떠올리며, 절을 나온

유선여관을 지나 마을로 향한다. 상가 뒤편 길로 들어가자 예전 마을이 그대로 남아있다. 마을에는 다니는 사람이 없다. 집집마다 차가 세워져 있는데, 차 앞 유리마다 대흥사 주지의 직인이 찍힌 종이가 붙어 있다. 마을 사람들의 차임을 구분하기 위해 그러했을 것이다.

“옛날에 마전밭, 참밭 그랬어. 스님가족을 산다 해서 등구라고도 하고, 장촌이라고 단 것은 얼마 안 됐어. 한 3년 됐어.”

사람 하나 보이지 않더니, 한 할머니가 마루에 앉아 밖을 보고 있다.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걸었더니, 마을의 내력을 잘 알고 있다. 정경업(83·장촌리) 할머니다.

“우리집 어른이 고신암이라고 열두 살에 와갔고 여든 둘에 돌아가셨당께.”

할머니의 얼굴엔 고요함과 파스칼이 함께 담겨 있다. 뜰에는 보기 드문 풀과 나무가 많다.

“큰 법당에 불나부러서 새로 집 짓나라고 여그다 막을 찼다고. 그레 그것이가 이 집터여. 여그가 막터여. 일꾼들 막 터. 대웅전 지술 때.”

집터에 얽힌 내력까지 나온다.

“여그서 삼스름 다른 절로 다니서 행화 기리는 양반이나 나라 돈 묵고 살았제.”

그제야 나는 대흥사 오르는 길에서 서 있던 조그마한 안내판을 떠올렸다. 탕화장 고재석 화승(전남도 무형문화재 31호) 남월(浪月) 선사가 바로 할머니의 바깥어른이었던 것이다. 열두 살(1936년)에 들어가 대흥사에서 사미승으로 있었던 남월 스님은 대흥사 불사를 하러온 탕화장 김일업



불교문화클러스터 사하촌을 가다

24 두륜산 대흥사

(중요무형문화재 45호)의 눈에 띄어 금어(金魚)의 길을 걷게 되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짙짙한 정신의 소유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정하게 자상하다가 가서분께 아쉬운 사람이 많하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생전 병환 한 번 안 다니고, 아픈 디도 없이 가셨어.”

제자들에게 혹독하기로 소문이 났던 남월 스님. 그는 4천장의 초본을 세필로 그린 사람에게만 채색을 가르쳤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제자는 손가락에 핏을 정도로 수가 적다. 그중 그의 셋째 아들 고성주(50·고교 미술교사)가 스님의 뒤를 이어 금어의 길을 가고 있다.

“시님이 나 살려놓고 가셨제.”

할머니는 남월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일을 이야기한다. 어느 날, 절에 갔다가 저쪽에 내려왔더니, 스님이 다짜고짜로 ‘별 아질 일찌기니 병원에 가게’ 그랬다는 것이다. 아픈 곳도 없는데, 병원에 가라는 스님 말을 듣고 버스를 타고 광주에 갔다고 한다. 그런데 버스에서 내리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다. 그 길로 마중 나온 자식들과 신경의과에 갔는데, 뇌혈관이 타지기 직전이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치료를 마치고 집에 오자 이번에는 스님이 앓아누웠다.

“내가 온게, 몇었다 그드라라고, 근디 그라고 나흘 아파서 광주 병원에 갔는데, 석 달 동안 말 하나 안 하고 가셨어. 딱 병원에 가심서부터는 전화도 끊어져불고 사람도 끊어져 부러야, 그렇게 받아나 낮이나 사람이 안 끊어졌디, 당신이 돌아가실라고 그라고 인연을 끊어부렸구나 싶드랑께.”

스님들의 속가가 이 집 말고는 없었느냐고 묻자, 몇 집을 들먹인다.

“이상 밧집 살았어. 길용이라고 그 시님 한 (입적하신 지) 7-8년 됐어. 박주지라고 있었디. 대흥사 주지 노릇 많이 했어. 마누라는 서울서 왔디, 선생질 하고, 그 남편 가신 지도 한 7-8년 됐어.”

마을을 빠져 나오는데, 아직 해가 지지도 않았는데, 상가의 서터가 내려지고 있다. 가게 보는 이가 주인이 아닌 절의 직원이 맞다. 다시 아래 상가

일지암 여연 스님



건강이니 웰빙이니 하여 차 문화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녹차 소비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다도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여 서로 목소리를 높이지만, 차를 마시며 무언가를 깨닫는 사람을 본적은 없다. 이런 와중에 여연

(如然 스님의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차>라는 책은 어설플 다인(茶人)에게 퍼뜩 정신들게 하는 주미 소리다.

여연(如然 스님(사진)을 만나기로 한 날, 여연(如然, ‘자연과 같다’는 말을 오래 생각했다. 약속된 시간에 알지 암에 도착 했는데, 주인이 없었다. 차를 마시며 기다리는 동안 구름이 갖가지 형상으로 변했다가 부수어지는 광경을 보고 있었다.

일지암은 우리 차의 증후군인 초의 스님이 머물렀던 곳이다. 하지만 문헌에 기록만 남아있을 뿐 일지의 위치조차 모

문헌 속 일지암 터 찾아 복원 초의 선사 차맥(茶脈) 이어

연하였던 것을 1970년대에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터를 찾고 복원하였다. 그때의 차인 중 한 사람이 여연 스님이다.

차의 종류로는 흑차, 백차, 홍차, 황차, 청차 등이 있는데, 크게는 발효 여부에 따라 나뉜다.

“이파리가 귀해서 하루 종일 따도 반통도 안 나오지. 그래서 이파리 키워서 만든 게 딱딱, 구멍 뚫린 것과 아닌 게 달라. 짓밟을 때 조금 양에 따라 차이 있었어. 구멍 뚫으면 발효가 잘 돼지.”

이어지는 이야기는 겨우겨우였다. 봉, 용 모양의 음각 양각에 생김을 넣어 먹었다는 복원차 이야기. 명나라 때 백성의 피해 심하므로 단차 금지 칙령을 내렸다는 이야기. 차에 대한 그의 박식함도 놀랍지만, 경험에서 얻은 소중한 지혜는 쉽게 들지 못할 이야기들이었다.

지금은 차에 있어서 1인자로 불리곤 하는 스님이지만, 스님이 차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된 사연은 독특하다. 1971년 해인사로 출가하였던 스님이 공부하기 위해 남해 용문사에 머물렀었다.

“원주스님이 아픈 거여. 근데 약국 갈려면 몇 십리는 걸어야 해.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데, 캐비닛 속에 있는 것을 보살이 꺼내 놓드라고. 스님들이 감기 걸릴 때 이 풀을 달아 먹드라면서, 그레 그것 반통 정도를 약탕기에 넣고 고왔디. 근디, 반년쯤 될 때까지, 그렇게 약을 고와 원주스님 드렸디. 다 마시고 나서, 무슨 약인데, 소태보다 쓰냐고. 그레, 그래서 캐비닛 속에 있던 그 풀이라고 했지. 그랬디, 별안간 호통을 치드라고. 그레 얼마나 귀한 차인데, 큰스님 드리려고 깊숙이 숨겨놓은 것인데, 그러면서.”

온갖 차를 대접 받는 동안, 신중 양자의 시간은 구름 흐르듯 흘렀다. 스님이 창문을 열고 밖을 내어다 보았다. 뒷모습을 가만 보고 있자니, 스님이 그대로 자연 속에 우러지고 있는 것 같았다. 여연(如然)이었다.



대흥보전 현판 (원교 이광사 글씨).



무량수각 현판(추사 김정희 글씨).



일주문.

세계인의 건강을 생각하는 돌침대, 흙침대 전문기업

(주)장수구들 이 만든 **장수하는 거북이** **옥돌침대** **흙침대**

www.geubooki.co.kr

한글도메인 | 거북이표 건강침대, 장수구들

‘불기 2551년, 불자님 성불하십시오.’ - 불자기업이 만듭니다.

인기 상품

422 로채Q (황토흙)

인기 상품

304 목련Q (음수목)

특별가 235만원

424 비토Q (황토흙)

특별가 199만원

303 피아노Q (홍맥반석)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이나 따뜻한 아랫목을 그리워하시는 스님이나 부모님께 건강침대를 선물하세요

160 엔틱침상 (홍맥반석)

163 카우치 (거실용소파/황토흙)

188 플로어 침상 (홍맥)

168 신카우치 (황토흙)

161 신침상 (황토흙)

서울본사전시장 412-2574~5 (대)

하남블루전시장 (02) 3402-2520

전국무료배송 (도서지역외/배송비별도)

강릉점 (033) 651-5223

대구점 (053) 586-0202

제주점 (064) 743-2366

취급점 및 대리점모집 02)487-1097